



정교회주보

한국 정교회 대교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Tel (02) 362-6371

Fax (02) 365-2698

orthodoxkorea.org



신자들 간의 일치

사도 바울로는 신자들 간의 일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첫째, 교회 안에서는 하나의 믿음만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것을 거룩한 사도들이 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둘째, 오직 한 분만이 우리 하느님 아버지이시며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교회와 한 몸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생명을 얻습니다.

셋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시대마다, 모든 민족은 하나인 세례성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합일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몸을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로서 일치를 이루면 성령께서 그 안에서 생동감 있게 활동하십니다.

- 소티리오스 대주교 강론 중에서 -

루가 제 2 주일

성 유스티나 순교자
성 키브리야노스 주교순교자
(제7조 • 조과 부활 복음 5)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제7조 부활 찬양송	82
순교자 찬양송	84
성당 찬양송	
주일 시기송	85
사도경 : 2고린토 6,1~10 - 봉독서257	
복음경 : 루가 6,31~36	122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이유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



“**나** 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분부하시는 말씀이다.

우리는 세례를 받는 순간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하게 되며 동시에 더욱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견진성사를 받는다. 견진성사는 성령으로부터 받는 날인으로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성령의 도움으로 굳은 신앙을 지키며 이를 전파할 수 있는 힘을 전달받는 하느님의 선물이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견진성사를 받은 교인은 사제의 축복을 받은 십자가를 목에 걸게 되는데 사제는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느니라.”라는 기도를 한다.

세례를 받고 견진을 받은 사람은 이 순간부터 자신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따라 생활하게 된다. 주님께서 '주의 기도'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내용,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영성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는 자신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곁을 떠나 낯선 땅에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자산을 잃은 후에야 자신의 잘못된 삶을 후회하고 참회하며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온다.

탕자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떠올린다. 주님의 은총을 가득 받은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며 주님의 선물을 낭비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 여기서 중요하게 변화된 탕자의 모습을 기억해 보자. 탕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냥 주저앉아 한탄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에게 찾아와 가장 낮은 자세로, 잘못된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 이를 본 아버지는 그를 다시 반갑게 맞이하며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

우리의 삶도 지금부터라도, 내 중심적인 또는 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사는 삶에서 변해야 한다. 안락하고 풍족하고 즐거움이 있는 곳을 찾아 헤매는 생활에서 빠져나와 주님의 말씀에 귀를 쫓긋 세워야 한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때 받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매 순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상해 보고 지금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 어떤 답을 주실지 기도하며 여쭙 봐야 한다.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사는 우리는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까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일들이 행해지게 되기를 간구해야겠다.

주님께서 계세마니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때에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그분의 기운을 복돋아 드렸다.”(루가 22,42~43 참조)

그리스도와 우리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비록 물질적으로는 가난할지라도 부유한 사람입니다. 하늘의 것보다 땅의 것을 더 갈망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 두 가지 것을 다 잃고 맙니다. 하지만 하늘의 것을 찾는 사람은 누구라도 온 세상의 주인이 됩니다.

- 이그나티오스 브리안차니노프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그분에 맞서서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원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그리스도를 미워하여 그와 싸우는 사람일 것이며, 그 외의 제3의 선택이란 없습니다.

- 성 저스틴 포포비치

분노와 악에 대한 기억, 그리고 부끄러운 생각들을 담고 있는 당신의 정신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 성 막시모스 고백자

이 세상의 일들이 홍수처럼 우리를 끌고 가지만 것처럼 한꺼번에 세차게 몰아치는 흐름 속에는 완전히 자란 나무 한 그루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육신을 취하시고 죽으셨으며,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혹 이런 거친 물살이 무턱대고 당신을 끌고 다닙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시간의 제약을 받는) 현세의 사람이 되셨으니, 이제 당신은 영원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한 분이므로 머물러 있으면서 동시에 현세적인 존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유죄 선고를 받은 기결수와, 그를 찾아온 사람이 감옥 안에 함께 있다면 그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때때로 어떤 사람이 감옥에 있는 자기 친구를 보려고 찾아오는데, 이 경우 둘 다 감옥 안에 있기는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곧, 한 사람은 죄를 지어서 거기 갇혀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그 갇힌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대한 자비심으로 인해 자유로이 구속을 받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 성 아우구스티노스

주간 예배 안내

* 10월 3일(월)

한국 정교회 24인 수호성인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바랍니다)

한국 정교회 24인 수호성인

축일 안내

내일(3일), 가평 구세주 수도
원의 24인 수호성인 축일 성찬
예배는 8시 30분에 조과, 9시
30분에 성찬예배를 시작합니다.

대절 버스는 따로 없으니 개
별적으로 오시면 됩니다.

■ 서울 성당 음식 축제 개최

10월 16일(주일), 성찬예배 후
에 음식 축제가 열립니다. 3년 만
에 개최되는 행사에 여러분의 많
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변
에도 널리 알려 정교회 선교를 위
한 좋은 기회가 되도록 합시다.

소식

■ 고등부·신데즈모스 수련회 종료

9월 23일~25일에 춘천 성당에서 진행된 고등부·신데즈모스 가을 수련회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서울, 울산, 전주 성당에서 총 22명의 청년이 참가하여,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의 지도로 성체성혈 성사에 대해 배웠습니다.

■ 인천 성당 보수공사

가을맞이 성당 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 성당 건물과 북카페 건물 내외부 페인트 작업과 LED 전구를 모두 교체했습니다.

또한 소성당의 누수 방지 공사를 하고, 은행나무 가지치기로 성당 외관이 가리지 않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신 신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양구 성당 대문과 울타리 설치 공사

진입로 공사에 이어서 대문과 울타리 설치 공사를 시작하며, 공사비는 2,500만 원 정도 예상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계좌로 현금하실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 1005-500-073554 (재단법인 한국정교회유지재단)

■ 서울 성당 장미 정원 조성

성당 마당에 '2022 평화의 장미 정원'이 세계 평화와 정의의 염원하며 한국 장미회의의 협조로 여러 장미 품종과 초목을 심어 조경하였습니다. 정원이 아름답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표지 사진 설명



승천 성당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째 되던 날에 제자들 앞에서 하늘에 오르셨다.(루가 24,51; 사도행전 1,9) 이른바 승천하신 것이다.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곳으로 알려진 장소에 승천 성당(사진)이 자리 잡고 있는데, 올리브산 정상에 있는 아랍인 마을 한가운데의 이슬람 사원 안에 있다.

승천 성당은 4세기 말에 처음으로 지어졌다. 하늘로 오르시는 주님을 바라본다는 의미로 지붕은 덮지 않았다고 한다. 7세기에 페르시아 침입으로 파괴되었으며, 그 뒤 재건되었다가 11세기 아랍 군대에 의해 재차 파괴되었다.

다시 교회와 수도원이 건립됐지만 12세기 말에 아랍의 지도자 살라딘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며 다시 파괴되었다. 그러나 그는 의외로 팔각형 모양의 승천 성당은 부수지 않고 남겨두었다. 다만 지붕이 없던 성당에 둥근 돔을 씌워 주님 승천의 근거를 없애버리고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하였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승천 성당은 이슬람에서 장악하고 있다. 교회는 매년 승천 축일에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성당 안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오른쪽 발자국이 찍힌 것으로 전해지는 작은 돌덩이가 남아있다.

한편 승천 교회가 이슬람에 의해 장악되자 러시아 정교회는 19세기 말에 올리브산 정상 부근에 교회와 수도원을 건립하고 교회 옆에는 60m 높이의 종탑을 세웠다. 예루살렘 전체 지역에서 제일 높은 승천 종탑으로 알려져 있다.